



# 대학주보

## 수능위주 정시모집비율 23학년도까지 40.9%로 확대

### 전체 정시모집비율은 45.3% 상당

이태영 기자 ysmhip6@khu.ac.kr

우리학교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3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부터 수능위주 정시 모집전형 비율을 40.9%로 확대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9일 수도권 소재 대학의 정시전형 모집 인원이 증가한다는 내용의 '2023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

으로 수시전형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심화되자 대입 공정성을 강화한다며 우리학교를 포함한 서울권 16개 대학에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던 2021학년도 입시에서 우리학교는 수능위주 정시전형으로 25.6%의 학생을 선발했다. 이후 2022학년도 입시에선 37%, 2023학년도 입시에선 40.9%의 학생이 수능위주 정시전형으로 선발될 예정이다. 2년 만에 해

당 전형의 모집비율은 약 15%p, 모집인원은 840명 증가하는 것이다.

수능위주 정시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이 증가하며 다른 전형의 모집 인원은 감소한다. 2023학년도 입시에서 우리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총 1,554명(29.2%), 교과전형으로 555명(10.4%)을 선발한다. 논술우수자전형을 통해선 487명(9.2%)이 선발되며, 수시 실기·실적위주 전형으로는 314명(5.9%), 정시 실기·실적위주 전형으로는 233명(4.4%)이 선발된다. 수시, 정시전형의 전체 모집비율은 각각 54.7%,

45.3%이다.

교육부가 정시 모집비율 확대를 권고한 다른 대학들도 2023학년도부터 수능위주 정시 모집 비율을 40%대로 확대한다. 이들 대학 중 수능위주 정시 모집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서울시립대로, 2023학년도에 해당 전형으로 45.9%의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은림 교육대학원 교수는 수능위주 정시모집 전형 비율 확대에 대해 "4차 산업혁명 등을 맞아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도 창의성, 협력 등으로 달라지고 있고 대학에서도 그

런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며 "5지선다, 단답형 문제를 통해 정보를 누가 더 많이 암기했는지를 측정하는 수능위주 전형을 확대한다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선발할 확률이 줄어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모두가 하나의 시험을 보고 점수대로 대학에 가는 것이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는 수능의 특성상 사교육에 접근하기 용이한 계층이 더 유리해질 수 있다"며 "공정성의 측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시 취식 공간으로 활용됐던 미술대학 야외실습장.

(사진=미술대학 학생 제공)

## 탄핵 의결 대의성 갑론을박

이정민 기자 michellejm@khu.ac.kr

이태영 기자 ysmhip6@khu.ac.kr

국제캠퍼스(국제캠)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일부 운영위원들이 중운위 의결에서 학생 여론과 거리가 있는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총학생회장단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운위에서 이들이 학생 다수의 의견과 대치되는 의결을 했으며, 이에 대한 소명도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국제캠 총학은 'KHUIZ-ON' 행사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행사 개최에 대한 반대 여론에도 총학이 행사를 강행했고, 행사 기획 과정에선 중운위와 협의도 없었다는 것이다.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제캠 총학이 발표한 등록금 반환 대응계획이 서울캠퍼스 중운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내용이라는 사실도 알려지며 논란은 확대됐다.

▶3면 '국제캠 총학'으로 계속

## 미대 휴게시설 논란 매점 설치도 어려워 <생협>

이현정 기자 pr3417@khu.ac.kr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서울캠) 미술대학(미대) 재학생들이 야외 취식 공간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 29일 에브리타임 익명게

시판에 미대 야외실습장을 취식 공간으로 지정한 것을 지적하는 글이 게재됐다. 게시물에는 '식사 시간 엄수'라고 적힌 팻말이 붙은 야외실습장 사진도 포함됐다.

▶2면 '미술대학'으로 계속